

광주 22개 고교 총동문회장 연합회 공식 출범

광충연 초대 총회장에 이경보 송일고총동문회장

광주 총졸업생 150만명 대표성 “다양한 네트워크 기회가 될 것”



이경보 총회장

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28곳이다. 광충연은 광주지역 1개 고교 졸업생을 5만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150만명의 대표성을 갖는다. 정통성과 상징적인 측면에서 광주광역시 대표 친목 단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충연 가입 조건은 고교 총동문회가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이날 참석한 22개 고교와 총동문회장은 △홍경표(광주일고) 회장 △이상철(광주고) 회장 △김연희(경신여고) 회장 △김부곤(광덕고) 회장 △이재동(광주공고) 회장 △김성숙(광주여고) 회장 △김철남(광주여상) 회장 △김성은(금호고) 회장 △오정선(대광여고) 회장 △양승환(대동



광주소재 22개 고교 총동문회장 연합회 '광충연(총회장 이경보·광주송일고 총동문회장)' 창립총회가 최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광충연 제공

고) 회장 △박규환(동성고) 회장 △김수관(동성고) 회장 △최훈(문성고) 회장 △김찬정(삼례시오고) 회장 △임선숙(삼례시오여고) 회장 △김상승(성원고) 회장 △홍인화(수피아여고) 회장 △오주일(송의과학기술고) 회장 △이경보(송일고) 회장 △함종순(전남공고) 회장 △진용태(전대 사대부고) 회장 △이정희(정광고) 회장 등이다. 이경보 총회장은 “광충연 출범이 회원 상호간 친목과 총동문 연합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광주는 고교 동문위주로 인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광충연 출범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한국심진흥원, 2차 청렴정책 회의

한국심진흥원(KIDI·원장 조성환)이 21일 청사 1층 한섬원아카데미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청렴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부서별 실·팀장, 선임급 직원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반부패 활동 평가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제강도 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청렴강사 초청 교육도 병행했다. 해당 교육은 부서장 중심 갑질·괴롭힘 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이다. 이문 중심 교육이 아닌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 중심의 실무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조성환 한국심진흥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자유롭고 유연하면서도 책임감이 뒤따르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서구자원봉사센터, 투표 독려 캠페인

광주시 서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승휘)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자원봉사단체 및 동 자원봉사캠프와 함께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공원, 상가,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참여단체는 기아국가유산지킴이, 두바퀴사랑회, 청솔·라인다솜이 봉사단, 대학생봉사단, 자원봉사대학 등이다. 이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당신의 투표로 시작됩니다”, “6월3일, 우리의 소중한 한표가 대한민국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임영희 서구자원봉사센터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소중한 한 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해 우리동네 플로깅, 기후위기대응 캠페인, 반찬 나눔 등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자원순환과 돌봄복지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수민 기자



국립목포대 '글로벌 자문위원회' 성료

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서울 라옌아트센터에서 글로벌대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글로벌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수산 전 한양대학교 부총장, 최원호 (주)태화그룹 회장, 김흥연 한전KPS 사장,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국립목포대 글로벌대학30 계획의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립목포대는 글로벌대학사업 지정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가장 모범적인 글로벌대학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립목포대가 전라남도의 거점대학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글로벌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하철 총장은 “글로벌대학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립목포대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해 대학교육 혁신, 글로벌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 등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지산딸기' 어린이 수확 체험 북광주농협, 친환경농 교육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과 최근 양산동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딸기 수확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이들은 북광주농협 지산딸기작



목회 소속 시설하우스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며, 농작물의 성장과정과 친환경 재배법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

졌다. 구상봉 조합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오매! 지산딸기'를 알리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해양에너지, 동신대에 발전기금 기부

(주)해양에너지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동신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부협약식에서 해양에너지 오광호 본부장은 에너지산업 등 우수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동신대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에게 발전기금 증서를 전달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총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동신대에 기부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발전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잡았다.

동신대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해양에너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해양에너지의 기업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오광호 본부장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우



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신대와 상호 협

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해 나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한은 경제 마스터즈' 산업현장 견학

ACC서 문화체험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한은 경제 마스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방문·견학 및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이날 'AI창업캠프'를 방문해 AI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창업캠프 기업들의 성과 등을 확인하고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인 AI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문화창조원 전시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작

가 초대전, 무장애(Barrier-Free) 전시, 관객 참여형 전시 등을 관람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산업현장 견학 및 문화체험을 통해 “지역 산업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로 선택에 유용한 현장 경험을 체득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과 경력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동부소방, 재난 대비 기관합동 도상훈련

광주 동부소방서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최근 상반기 기관합동 도상훈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동부소방서 내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구조통제단원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이번 훈련에는 동부소방서를 비롯한 7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참석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기관별 역할 및 임무 숙지

△긴급구조 지원기관별 역할 및 개선 사항 회의 △재난 위기 발생 시 기관별 대응 방안 발표 △기관별 실무자 협력 회의 등이 포함됐다.

각 기관은 부여된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들의 임무를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문화준 동부소방서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